쿠바의 인적 자본축적과 경제성장

이 계 우
(이화여대 교수)

Ⅰ. 서 론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인적 자본의 축적이 성공적인 경제 발전 전략의 기본 축의 하나라고 주장해왔다(T.W. Schultz 1961, 1980; Harberger 1972; Psacharopoulos 1993). 지난 몇 년간, 이러한 논의는 규모의 이윤율(returns to scale)과 긍정적인 외부효과 (externalities)의 가능성과 상통하는 성장 모델의 발전에 의해 그 인기가 재확인되었다. 예컨대, 아자리아디스와 드라젠(1990)은 교육이 일단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전반의 외부효과가 생산성 증가의 정도를 높이고, 그래서 경제성장을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Edwards 1995).

그러나, 지난 몇 십 년간 쿠바의 경제 성장 과정은, 새로운 경제성장 이론과 신고전주의 인적자본 이론과 맞지 않는 것 같다. 1959년 혁명이후, 쿠바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를 누려왔다. 쿠바와 소득수준이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높은 다른 많은 중남미 국가들도 보건의료나 교육에 있어 쿠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종족, 연령, 성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쿠바인

구가 기초 공공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아왔으며, 그 서비스의 질도 경제수준이 높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서비스에 비해 높거나 유사했다. 확실히 지난 40년간 쿠바의 인적 자본 축적은 개발도상국들, 특히 중남미 이웃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높았다. 하지만, 그러한 교육. 보건서비스 제공의 보편화와 평등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쿠바의 거시경제는 침체되어있었다. 이 논문은 지난 40년간 쿠바의 인적자본 축적과 거시경제 성장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경제발전이론과 쿠바의 현실 사이의 모순과 괴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발전전략으로서의 신고전주의 인적 자본론을 간략히 고찰한다. 다음, 제3장에서는 쿠바의 교육과 보건의료 부분의 발전을 평가하고 제4장에서 쿠바의 거시경제 성장을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모순되어 보이는 발전 이론과 쿠바의 거시경제 현실을 하나의 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II. 신고전주의 발전이론

로머(1986)와 루카스(1988)는 인적 자본이 물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에 있어 독립적인 요소로 취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이 인적 자본과 기술변화 사이에 어떠한 뚜렷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이론을 뒤따라서, 더 많은 학자들이 기술 혁신과 적용, 인적자본 축적 및 경제적 여건들은 모두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시 말해, 그러한 요인들이 성장 모델의 내부적 요인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본 축적은 기술변화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자본, 노동 등 모든 생산 요소가 각 개별 생산요소의 합보다 더 많이 성장에 더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루카스(1993)는 196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의 소득 수준이 매 7년마다 2배씩 높아진 것은 인적자본 축적에 의한 생산성 증가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본 저자(1983)와 Amsden(1989)도 한국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경이적인 경제 발전과 성공의 뒤에는 해가 갈수록 기술 향상을 촉진시킨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양질의 노동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에 대한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이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Hukuda(1993)는 중등학교 교육이 각국의 경제성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표학길(1993)도 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홍콩, 한국, 싱가포르와 대만- 이 지난 25년간 다른 모든 비교집단에 비해 경제성장 폭이 실질적으로 컸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교육 투자의 증가가 1955-1990년 사이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Easterly (1993)는 회귀분석 결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가 경제성장 회귀분석에서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찾아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을 한 집단으로 비교 연구한 Barro(199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표 1>은 실질 성장률과 교육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의 신개발도상국들과 경제력이 높은 남미의 국가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교육의 기회가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남미의 국가들 보다 경제성장률도 높았다.

인적자본이론은 정규 교육 이수라는 관념 보다 인적자본 축적의 개념을 확대해석 한다. 이는 비공식적 교육, 직업 훈련, 보건, 및 영양에서의 성취를 포함하는 것이다(Harbison 1964; Becker 1964). 특히, 인적자본이론은 보건과 영양이 노동자의 생산성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며 막대한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행성 전염병은 국가 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고, 장기적 거시경제 발전에 막대한 경제성장저해도 초래할 수 있다.

<표 1> 중남미 및 아시아 국가의 취학률 (1989년)

Economy	초등교육 취학률	중고등교육 취학률[a]	대학교육 취학률[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rgentina	96[b]	71[d]	41[d]
Brazil	84	39	11
Chile	89	75	19
Colombia	69	52	14
Costa Rica	86	41	27
Mexico	100	53	15
Average	87	55	21
Cuba[c]	92	89	21
Asia			
Hong Kong	100	73	n.a.
Japan[c]	100	95	30
Korea, Rep. of	100	86	38
Singapore	100	69	n.a
Average	*100*	*81*	*34*

Sourc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1-199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998*
a. 해당 연령 집단에서의 비율 b. 1987 c. 1988 d. 1990

교육은 거시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 수준 증가에도 기여한다. 많은 연구들이 교육이 노동자의 생산성과 소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들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예컨대, Mincerean 소득 방정식을 사용하여, 본 저자(2000)는 경력의 차이를 통제한 후에도 나타나는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교육과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일년의 추가 교육이 7%까지 노동 임금을 증가시킨다. 나아가, 교육의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의 경기 변화에 따른 임금의 변화가 더 낮다 (Psacharopoulos 1993). 또한, Psacharopoulos와 Fiszbein(1991)은 교육의 정도가 한 개인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게 될 확률을 예측하는데 주요한 결정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Ⅲ. 교육과 보건의료 부문의 발전

1. 교육의 발전

쿠바의 교육 발전은 평등한 기회, 효율성, 질 및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칭찬 받을 만한 것이었다. 교육부문에서의 최근의 발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부분의 통계는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표 2000에서 인용되었으며, 그 외의 것은 따로 표시하였다)

교육의 기회: 거의 모든 쿠바의 취학 연령 아동은 유치원과 초등교육을 받고 있다. 초등교육에서 전체 취학률은 1980년에 97%였고 1998년엔 100%에 달했다. 이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서 초등교육 취학률 94%와 비교된다. 유치원 교육은 1991년 겨우 26%에 지나지 않았던 취학률이 1998년 98%로 올라 더욱 경이적인 교육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1989년 수치는 겨우 55%였다(표1). 1959년 혁명이후, 쿠바는 현격한 교육적 성취를 보인다. 1959년에는 반 정도의 아동이 전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13-19세 아동의 72%가 중등교육을 받는데도 실패했다(PNUD 1997).

쿠바가 일찌감치 초등교육 보편화를 이룬 것은 그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남미에 대한 연구 시리즈는 특히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두 높은 투자이윤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Psacharopoulos 1993; Selowsky 1969) Psacharopoulos와 Ng (1992)는 14개 사례 중 11개 사례에서 초등교육의 사회적 이윤율이 중고등 교육의 사회적 이윤율을 초과한다는 것을 밝혔다. 18개 사례중 13개 사례에서, 초등교육에서의 사적 보상률이 중고등교육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미 국가들은 다른 교육에 비해 초등교육에의 투자를 게을리해왔고, 그래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 살바도르, 아이티, 혼두라스, 니카라구아 및 베네수엘라의 초등교육 취학률

은 1998년에서 조차 90%미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달리, 동아시아의 신개발도상국에서는 모두 초등교육 취학률이 거의 100%에 가까이 달했다.

쿠바의 초등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 더 의미가 있다. 여성 초등교육의 보편화는 생산적인 고용 기회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출산율과 가족의 영양 섭취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Psacharopoulos 1993).

효율성 : 취학연령 아동의 높은 교육 참여 외에도, 쿠바의 교육 체제는 높은 투자의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초등교육과정에서 유급생은 1980년 총 취학률의 5.7%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유급율도 1997년엔 3.1%로 향상되었다(표2). 재학중인 대부분의 아동들은 반드시 5학년을 마쳐야 하는데, 그때까지면 아동들은 더 높은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학능력, 즉 읽고 쓰는 기본 능력과 수치 계산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유급생은 가정과 사회의 교육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제한된 학교 자원을 소모시킨다. 남미 교육 체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급률이 유난히 높다는 점이다. 남미의 유급률은 전세계 개발도상국들 중 가장 높다. 다른 남미 국가들의 경우, 유급률은 1998년 평균 약 9.6%였다. 1990년, 유급으로 인해 남미 전체가 부담한 비용은 미화 4십억불을 초과하였다 (Psacharopoulos 1993). 반면에 동아시아 신진 공업국에서의 유급률은 1.1%에 지나지 않는다.

질 : 1인당 국민 소득이 유사한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볼 때 쿠바의 교육적 성과는 경이적이다. 쿠바 의 교육 성취도는 이례적으로 낮은 성인 문맹률에 반영되어 있다. 1997년 쿠바의 성인 문맹률은 4%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쿠바는 남녀 모두 같이 낮은 문맹률을 보였으며, 교육 기회, 효율성 및 질에서도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1959년 혁명 이전에는 성인 문맹률이 43%에 달했으며, 이러한 문맹률은 성인 여

성 사이에서 더 높았었다(PNUD 1997). 다른 남미 국가의 경우 성인 문맹률은 쿠바보다 높거나, 성별 편차가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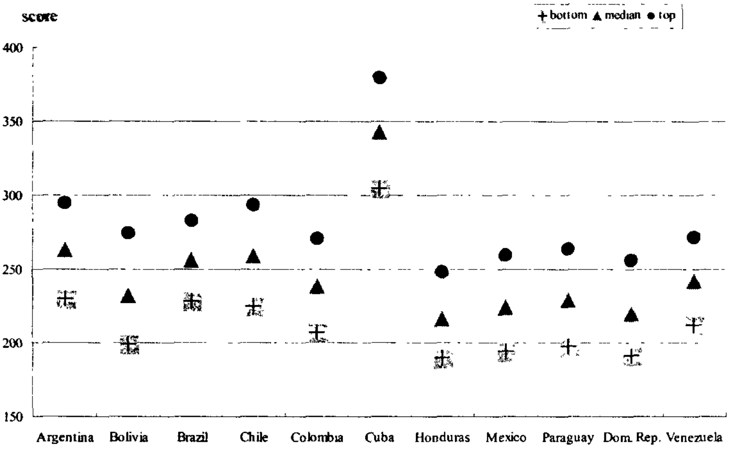
<표 2> 교육의 효율성 및 성과

	유급자층 취학자 중 %				성인여성 문맹률 15세이상 여성중 %	
	초등교육취학자중		중고등교육취학자중			
	1980	1998	1980	1998	1980	1998
Latin America						
Argentina	n.a.	5.3	n.a.	n.a.	6	3
Brazil	20.2	18.4	7.3	10.8	27	16
Chile	n.a.	5.4	n.a.	4.3	9	5
Colombia	13.2	7.2	n.a.	n.a.	17	9
Costa Rica	7.9	10.1	7.5	9.6	9	5
Mexico	9.8	6.9	n.a.	2.1	22	11
Average	*12.8*	*8.9*	*7.4*	*6.7*	*15*	*8.2*
Cuba	5.7	3.1	n.a.	n.a.	8	4
East Asia						
Hong Kong	3.6	1.1	6.5	3.9	24	11
Japan	n.a.	n.a.	n.a.	n.a.	n.a.	n.a.
Korea	n.a.	n.a.	0.0	n.a.	11	4
Singapore	6.6	n.a.	n.a.	n.a.	26	12
Average	*5.1*	*1.1*	*3.3*	*3.9*	*20.3*	*9.0*

Source: UNESCO, SIRI (1998)

읽고 쓰기는 교육의 질이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는 간접적인 지표일 뿐이다. 더 직접적으로 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성취도 시험 결과이다. <그림 1>은 쿠바의 3학년 학생들의 언어 성취도 시험 성적이 다른 남미국가의 학생들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쿠바 학생들의 성적은 표준 편차의 2배만큼이나 더 높았다. 쿠바 학생들 하위 4분의 1의 평균 성적이 다른 모든 남미 학생들 상위 4분의 1의 평균성적보다 높다.

그림 1. 초등학교 3학년 언어성취도 점수
(25%, 중위수, 75%)



재정 : 쿠바의 독보적인 교육서비스 향상은 인적 자원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 공공 투자의 결과이다. 다른 남미 국가들이 국민 총생산의 4-6%를 교육에 사용한데 반해, 쿠바는 1990년대 경제 위기에도, 국민총생산의 8.5~10%를 교육에 투자하였다(Gaspirni 2000).

2. 보건의료 발전

교육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쿠바의 보건 의료 부문은 혁명 이후 현저하게 발전되었다.

보건의료 기회 :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쿠바 인구의 비율은 1982년 61% 에서 1995년 91%로 증가하였다. 위생시설 사용 인구도 1982년 31%에서 1995년 92%로 증가하였다. 보건의료시설을 보면, 1,000명당 3.6명의 의사와 5.4개의 침대를 제공하고 있다. 거의 모든 아동이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였다. 쿠바의 영유아 홍역 예방접종률은 1980

년 48%에서 1997년 99%로 증가했는데, 이는 많은 남미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유아 예방접종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OECD국가들과 같은 수준이다(표 3).

<표 3> 보건의료 서비스 기회

	안전한 물 접근 (총 인구중 %)		위생시설 접근(총 인구중 %)		홍역 예방접종률(12개월미만 영아 중 %)		1,000 명당 의사 수(명)		1,000명당 병원 침대수(개)
	1982-85	1990-96	1982-85	1990-96	1995-98	1980	1990-98	1980	1990-98
Latin America									
Argentina	55	65	69	75	98	n.a.	2.7	n.a.	3.3
Brazil	75	72	24	67	99	0.8	1.3	n.a.	3.1
Chile	86	85	67	n.a.	92	n.a	1.1	3.4	2.7
Colombia	n.a.	78	68	83	89	n.a.	1.1	1.6	1.5
Costa Rica	n.a.	92	95	97	99	n.a.	1.4	3.3	1.9
Mexico	82	83	57	66	97	0.9	1.2	n.a.	1.2
Average	74.5	79.2	63.3	77.6	95.7	0.85	1.5	2.8	2.3
Cuba	82	93	n.a.	88	99	1.4	5.3	n.a.	5.3
East Asia									
Hong Kong	n.a.	n.a.	n.a.	n.a.	82	0.8	1.3	9.1	n.a.
Japan	99	96	99	100	94	1.4	1.8	11.3	16.2
Korea	83	83	100	100	95	0.6	1.1	1.7	4.6
Singapore	100	100	85	100	89	0.9	1.4	4.2	3.6
Average	94	93	95	100	90	0.9	1.4	6.6	8.1

Source: World Bank(2000).

성과 : 보건의료 시설 활용의 용이성은 쿠바의 국민 보건 수준이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우수하며, 많은 OECD국가들의 국민 보건수준과 비교할만하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평균 예상 수명은 1998년 76세에 달했고, 1996년 총 인구 중 노년층의 비율은 많은 OECD국가들과 같은 수준인 13%를 차지했다. 1996-98년 사이 출산의 100%가 전문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산모 사망률도 100,000명의 신생아당 36명으로 감소하였다. 영유아 사망도 1980년 1,000명의 신생아당 20명이었던 것이 1997년엔 7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체중미달 신생아도 총 신생아 중 8%밖에 되

지 않았다. 체중미달 아동 역시 전체 5세 미만 아동의 8%로 나타났다. 총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5명으로 감소했으며, 연간 인구 증가율은 겨우 0.4%밖에 되지 않는다(표 4).

<표 4> 보건의료 서비스 산출

	출생시 평균 예상 수명 (년)		영유아 사망률 신생아 1,000당 (명)		산모 사망률 신생아 100,000당(명)	총 출산율 여성 1명당 신생아(명)		전문 의료진의 출산 참여비율(%)		신생아 중 체중미달아 비율(%)	아동 영양실조 5세미만 아동 중 체중미달 아동 비율 (%)
	1980	1998	1980	1998	1990-98	1980	1998	1982	1996-98	1992-98	1992-98
Argentina	70	73	35	19	38a	3.3	2.6	n.a.	97	7	2
Brazil	63	67	70	33	160b	3.9	2.3	98	92	n.a.	6
Chile	69	75	32	10	23b	2.8	2.2	92	99	7	1
Colombia	66	70	41	23	80a	3.9	2.7	n.a.	85	9	8
Costa Rica	73	77	19	13	29a	3.6	2.6	93	97	7	5
Mexico	67	72	51	30	48b	4.7	2.8	n.a.	68	8	n.a.
Average	68	72.3	41.3	21.3	63	3.7	2.5	94.3	89.7	7.6	4.4
Cuba	74	76	20	7	27	2.0	1.5	n.a.	100	8	n.a.
East Asia											
Hong Kong	74	79	11	3	n.a.	2.0	1.1	89	100	5	n.a.
Japan	76	81	8	4	8c	1.8	1.4	n.a.	100	6	n.a.
Korea	67	73	26	9	20c	2.6	1.6	70	98	4	n.a.
Singapore	72	77	12	4	6c	1.7	1.5	100	100	n.a.	n.a.
Average	72	78	14	5	11	2.0	1.4	86	100	5	n.a.

Source: World Bank(2000).
a. official estimate b. estimate based on survey data c. estimate by WHO and Eurostat

재정 : 쿠바 인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 성과는 정부의 인적 자원에 대한 막대한 투자의 결과이다. 사회적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두었던 쿠바의 정책은 1990년대 경제 위기 시에도 변함이 없었다. 쿠바 정부는, 1959년 혁명이후 쿠바 인구가 누려온 사회적 복지혜택을 줄이지 않고 경제를 회생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의료에 대한 공적 지출은 1990-97년에도 국내총생산의 7.9%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출은, 다른 남미국가의 공적 및 사적 보건의료 지출의 총계수준과 대등하다 할 수 있다.

3. 여성 참여

쿠바의 가장 두드러진 발전은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급진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인적자원 개발의 동등한 기회와 정부의 여성우호적 정책 실현 덕택에, 쿠바에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참여는 눈에 띄게 향상되어왔다. 예컨대, 1959년에 12%에 지나지 않았던 여성 노동참여율이 1996년엔 41%로 상승하였다; 상업, 통신, 및 산업 분야의 여성 노동자는 각각 총 고용의 50%, 50%, 및 30%를 차지한다; 여성은 경영직의 36%, 전체 의사의 51%, 행정직의 87%, 기술 및 보건 의료 직종의 70-80%, 검사의 55% 그리고 판사의 44%를 차지한다 (PNUD 1997).

Ⅳ. 거시경제운영 성과

1. 거시경제의 성장

1960-1989: 1960-1989년 동안 쿠바 경제는 연간 4.0%의 성장궤도를 달렸다. 그것은 같은 기간동안 4.3% 성장률을 기록한 라틴아메리카 경제나, 8.2%의 아시아 경제보다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쿠바의 경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9년부터 93년 사이에 수출은 75%나 감소했고, GDP는 35%-48% 가량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주된 요인은 1986년에 시작된 반-시장적인 교정 과정과 1989년 이전까지 쿠바 무역량의 85%를 담당하던 소련연방과 상호경제협력위원회(CAME)의 해체와 그리고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미국의 경제 봉쇄 조치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부터 쿠바 정부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정 정책과 구조 개혁 계획을 내세웠지만, 그 진행과정은 상당히 간헐적이고 불안정했다. 게다가 정부는 가능한 한 국민간의 소득수준의 형평성을 보

존하려고 애썼고, 국민의 취업수준과 생계를 유지시키려고 노력했다.

1959년의 혁명 이후 쿠바의 개발 전략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정부에게 귀속되고 중앙 집중적 계획과 생산요소의 국가소유라는 대원칙에 기초를 둔 정부 중심의 계획이었다. 1960년대 말까지 고정 자산에 대한 정부의 투자율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는데, 농업에서 37%, 산업에서 85%, 건설 80%, 운송 92%, 소매 교역 50% 등이었다.

제1차 개발계획은 수입대체산업화정책(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 policy)을 통해서 설탕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농산물 가공 산업이 지배적이던 경제를 다양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당시 제당 산업은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했고, 수출 상품의 80%를 차지했으며, 노동력의 20~25%를 흡수하고 있었다(ECLA 1997). 다른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처럼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은 1970년대까지는 국내 수요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60년대에 성장률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연 5.5%)보다는 훨씬 낮은 연간 평균 2.8%를 기록했다(표 5). 그러나 60년대 중반에 들어서 정부의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은 한계에 다다랐고 따라서 정부는 1차 생산품의 생산에 초점을 둔 국제 노동력 분화를 실시하여 대회무역 관계를 재정비하려 노력했다.

공공 기업의 재정적 독립과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중앙계획경제 시스템(Systema de Direccion y Planificacion de la Economia (SDPE))을 도입함으로써 쿠바 경제는 1970년대 전반에 걸쳐 급속하게 성장했으며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호환이 가능했고 따라서 쿠바는 1972년 CAME에 가입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쿠바는 산업화를 위해 공공 투자 부문에 주의를 기울였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융합을 추구하며 규제 철폐와 가격 및 봉급 개혁을 통해 생산과 효율을 증대시키려 노력했다. 쿠바 경제는 1970년대의 전반동안 전례 없던 연간 10%라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했고 1984년까지는 연 4.6%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국가들은 70년대에는 4.9%의 성장을 했으나 80년대 초반에는 채무 위기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다.

<표 5> 연평균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				
	1960-70	1970-80	1980-85	1980-91	1990-97
Latin America					
Argentina	4.2	2.2	-1.4	-0.4	5.4
Brazil	5.4	8.4	1.3	2.5	3.4
Chile	4.5	2.8	-1.1	3.6	7.9a
Colombia	5.1	5.9	1.9	3.7	4.4
Costa Rica	6.5	5.8	-0.4	3.1	3.8
Mexico	7.2	5.2	0.8	1.2	2.2
Average	5.5	5.1	0.2	2.3	4.5
Cuba	2.8	6.7	5.7	2.2b	-3.4
East Asia					
Japan	10.9	5.0	3.8	4.2	1.5
Korea	8.6	9.5	7.9	9.6	7.2
Singapore	8.8	8.5	6.5	6.6	8.5
Hong Kong	10.0	9.3	5.9	6.9	5.3
Average	9.6	8.1	6.0	6.8	5.6

Source: Jaspersen (1997), World Bank(2000) a. 1990-1998 b. 1985-1990

80년대 후반, 특히 1986-89년 동안의 교정 기간동안 쿠바는 반 시장 급진주의와 도덕성과 사기함양을 목표로 하는 실험주의로 돌아갔다. 1989년 쿠바 경제의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가장 집단화되고 평등을 추구하며 소련연방의 보조를 받는 외부 의존적인 경제였다. 동독과 (1989) 소련 연방(1991) 그리고 CMEA의 붕괴는 쿠바 경제에 통렬한 영향을 미쳤다(Mesa-Lago 1998). 이 기간동안 쿠바의 경제는 연 1.3%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여서 4.5%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던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들과는 큰 차이가 나며, 이 기간동안 동아시아의 경제는 7.6%라는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보인다.

1960-89년의 기간동안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중앙집중적계획을 거시경제운영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활용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다른 많은 사회주의 경제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대규모의 투자 사업을 지향했고 전통적인 기술을 사용했으며, 경쟁이라는 요소를 거의 무시했다. 특히 쿠바 경제는 과도하게 물질적인 자본을 사용했으며 저수지나 철도, 고속도로, 선박, 전력 공급과 같은 경제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장 시켰다(ECLAC 1997). 게다가 보건, 교육, 문화, 스포츠와 같은 인적 자본 개발에 많이 투자했으며 그 결과 기본적인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었고 인간 자본 축적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1990년대: 1990년에 들어서 쿠바는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을 소극적으로나마 시험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정부가 한정된 외국인 투자 산업 부문에서 개혁을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조절하려는 의도에서 외국인 투자 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3년에 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는 마지못해 국내 개혁을 실시하게 된다(Mesa-Lago 1998b). 쿠바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작동하는 자유경쟁 시장을 농업과 산업 부문에서 만들고; 사기업과 자영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농업 및 목축 협동조합을 만들고; 정부와 사기업의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광범위한 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공기업의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줄이고; 가장 취약한 집단에로의 소비재 배급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앙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분화하고; 금융, 은행과 비즈니스 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각 분야에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PAHO, 1998). 이 모든 노력은 그러나 소극적인 부분개혁에 그침으로써, 논리적 순서에 따른 잘 통합된 계획이 되지는 못했다. 대신에, 이따금씩 단편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으나, 실패로 끝나기도 했고, 또 정부는 과도한 규제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개혁을 강력히 통제하려 했다. 1992-96년 사이 미

국의 통상 봉쇄조치(the Torricelli Law of 1992 and Helms-Burton Act of 1996)는 개혁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Mesa-Lago 1998).

<표 6> 쿠바 정부와 ECLAC의 GDP 통계 1985-1997
(in million constant pesos of 1981, index 1985=100)

	중앙은행-통계청			ECLAC		
Years	Pesos(mln)	Rate(%)	Index	Pesos(mln)	Rate(%)	Index
1985	20,369	.	100.0	20,352	.	100.0
1986	18,998	-6.7	93.3	20,385	0.2	100.2
1987	19,489	-2.7	90.8	19,934	-2.2	97.9
1988	19,351	4.7	95.0	20,644	3.6	101.4
1989	19,586	1.2	96.2	20,960	1.5	103.0
1990	19,008	-3.0	93.3	20,349	-2.9	100.0
1991	16,976	-10.7	83.3	18,415	-9.5	90.5
1992	15,010	-11.6	73.7	16,591	-9.9	81.5
1993	12,777	-14.8	62.7	14,332	-13.6	70.4
1994	12,868	0.7	63.2	14,421	0.6	70.8
1995	13,185	2.5	64.7	14,783	2.5	72.6
1996	14,218	7.8	69.3	15,908	7.6	78.1
1997	14,574	2.5	71.5	17,117	2.5	84.1

Source : Messa-Lago 1998a, updated with Ministerio de Economia; ECLAC 1997 and 1998.

신빙성있는 쿠바 경제의 거시경제학적 통계 자료를 얻기는 매우 힘들다. 1989년 이래로 쿠바의 연간통계자료는 95년까지는 발간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의 공식 보고서 또한 연속적인 데이터나 방법론적 설명이 배제되고 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1989-93년 사이에 쿠바 경제는 놀라울 만큼 위축되었다. 사회총생산(Global Social Product: GSP) 측면에서는 총 45%가 감소했으며 GDP로는 48%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공식 통계로는 1994년의 GDP 성장률은 0.7% 이고, 95년은 2.5% 이었다고 쿠바 정부는 밝히고 있다. 비록 1996년 7.8%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약간

의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1997년 쿠바 경제는 다시 2.5%의 성장률로 쇠퇴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1990년부터 97년까지의 기간동안 동아시아는 금융위기를 겪었으나 연간 5.6%로 성장했고, 다른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도 연간 4.6%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2. 국민생활수준

쿠바의 경제위기 이후 쿠바인들의 생활수준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1985-96년 동안 인구 한 명 당 GDP의 감소는 페소로 36.5%라고 한다. 2000년 쿠바 페소와 미국 달러와의 환율은 1:1 이었기에 달러로 계산해서 개인 당 국민 소득은 1985년 그 최고치를 기록했다. 만약 암시장에서의 환율이 1985년에 만연했던 것처럼 달러 당 6페소였다면, 쿠바의 그 해 인구 한 명 당 GDP는 334달러였을 것이고, 이것은 아이티의 인구 한 명 당 GDP와 같은 수준이다(World Bank, 1987). 1996년의 공식 연평균 환율은 19.2 페소가 일 달러였다(ECLAC, 1997).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보고된 인구 한 명 당 GDP가 1274 페소였으므로, 이것은 미화로 66달러가 되고,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개인 당 국민소득수준이었다(World Bank, 1996). 그러나 비공식적 시장 환율은 보건, 교육, 식량 배급과 같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조나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명목상 임금의 50%가 넘는다고 공식적으로 추정할 때(BNC, 1996), 위에서 추정한 1996년 인구 한 명 당 GDP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요건들을 다 고려한다 해도 1996년의 인구 한 명 당 GDP는 91달러밖에 안되고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가장 낮은 개인 당 국민소득 수치였다(Mesa-Lago 1998b).

1959년의 혁명 이후 쿠바는 완전 고용, 범국민적 무료 교육과 보건복지, 그리고 다른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기본 생활 수요 충족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경제위기와 개혁은 심각한 실업과 사회복지의 감소를 초래했고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초래했다.

ECLAC는 공개 실업과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잉여 노동자(desempleo equivalente)를 모두 고려했을 때 1993년 실업률은 35.2% 이고 1995년에는 31.5%였다고 추정한다(Mesa-Lago 1998b). 폐업한 병원시설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ECLAC는 인구 한명 당 칼로리 섭취가 1989년의 2845에서 1994년의 1670으로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의 최소기준영양가 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중학교 진학률이 1989년89%에서 1997년에는 70%로 감소했고(World Bank, 2000), 대학 수준의 진학률 감소는 더더욱 현저하다. 1990년대의 경제위기와 내부 개혁은 쿠바에 심각한 정도의 소득 불균형을 초래했다. 실제 월간 소득은 1989-96년의 기간동안 45%가 감소했으며 소득을 얻는 사람과 얻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부가 1993년에 자영업을 다시 허용했지만, 그 분야는 여전히 직업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제한되어있고, 그리고 관료주의적 규칙이나 허가 수수료, 과도한 세금으로 제한되고 있다. 한 분석가에 의하면 1995년 한 작은 레스토랑 소유주는 다른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의 414에서 829배를 얻고 있었고, 이것은 의사나 최고 기술자, 혹은 대학 교수들이 받는 수입의 228배에서 400배 정도였다고 한다(Mesa-Lago, 1998).

V. 결 론

혁명 이후 쿠바 경제의 성장과정은 신고전적, 내생적 경제 성장이론에 익숙한 학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신고전적, 내생적 경제 성장이론에 기초를 둔 경제발전 전략은 인간 자본에의 투자 증가는 총합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을 직접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주장한다. 쿠바 정부는 인적 자원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고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축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의 쿠바의 거시경제운영 성과는 아주 미미하거나 보통 수준도 넘지 못했다(Table 6).

여기서의 단 하나의 예외는 1970-74년 기간동안 이다. 이 기간 동안 쿠바의 경제성장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과 맞먹는 10% 정도였다. 이 기간이 쿠바 경제가 CAME에 가입한 기간과 일치하였으므로, 국제 무역의 증가가 필시 이 높은 성장률에 공헌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1992-1996년 동안에 미국이 한 대쿠바 봉쇄조치는 분명히 90년대 쿠바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온 부분적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1992년까지의 30년 동안의 무역 봉쇄조치가 상대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음을 나타내며, 쿠바 거시 경제의 미미한 발전이 미국의 대쿠바 무역 봉쇄조치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나타낸다.

오히려 이렇게 부진했던 쿠바의 경제성장률의 기본적 원인은 경제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하겠다. 쿠바 경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 수준의 투자를 흡수하지 못했다. 1970-74년의 높은 경제성장률 기간 동안, 총물량생산(gross material product: GMP) 대비 투자 수준은 약 17%로써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성장률이 부진했던 1980-88년 동안에는 투자율이 31%로 훨씬 높았었다. 첫 30년 동안 쿠바에서의 투자는 대부분 소련 연방의 지원으로 충당된 것처럼 보여진다. 이것은 쿠바 정부의 투자율과 소련 연방의 원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에서 알 수 있다(표 7). 자금의 투자와 운용에 있어서 경쟁이 없었던 만큼, 정부 투자는 분명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배분되어졌을 것이다.

<표 7> 거시경제지표

기간	경제성장률(%)	GMP대비 투자율	GMP대비 소련원조비율	TFP(%)
1960-64	1.9	14	8	1.0
1965-69	3.6	19	7	
1970-74	10.0	17	7	0.8
1975-79	3.4	28	18	
1980-84	5.7	30	33	-1.2
1985-88	1.3	31	n.a.	
평균	4.4	23	15	0.2

Source: Madrid-Aris (1998)

총체 경제나 부문경제의 성장은 노동력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성장률과 기술적 변화와 총요소생산성(TFP) 성장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Madrid-Aris(1997)는 쿠바의 TFP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변화수준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수준과는 반대 방향이었다고 보여준다(표 8). 투자와 노동 자본 축적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69년대와 70년대에, 쿠바의 TFP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80년대의 TFP 레벨은 총 투자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었을 때 오히려 감소했다. 그는 또한 1962-88년 동안의 쿠바 경제 성장이 러시아의 경제성장(Krugman, 1994)과 비슷하다고 언급한다. 그것은 두 국가의 성장이 생산성 증가보다는 단지 과도한 때로는 낭비적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자본 축적으로 인해서 얻어졌다는 것이다. 쿠바의 낮은 기술적 진보는, 아마도 과도한 투자와 이윤의 극대화를 부추기는 경쟁이나 경제적 유인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표 8> 총생산성 (TFP) 측정과 투자

기간	TFP(%)	총생산 성장률(%)	투자증가율 (%)	총소득중교육투자비율	총소득중보건투자비율	총인구중노동력비율
1963-70	1.0	4.4	3.2	3.2(1960); 6.7(1965)	2.0(1960); 3.8(1965)	15(1962); 23(19700
1971-80	0.8	5.9	18.3	10.0(1970); 10.0(1975)	6.2(1970); 3.8(1975)	26(1975)
1981-88	-1.2	3.8	4.9	13.6(1980); 13.1(1987)	4.5(1980); 6.6(1987)	28(1982); 33(1988)
평균	0.2	4.5	9.3			

Source: Madrid-Aris (1998)

신고전적, 내생적 경제성장론은 쿠바 경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쿠바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경쟁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전적 내생적 경제성장론이 쿠바 경제의 발전상황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에 부적절한 까닭은, 그 이론이

노동자가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 받는 경쟁적 노동 시장이라는 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 그 생산성은 교육, 훈련, 건강 그리고 경험과 같은 인적 자본의 투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 성장이론 모델은 각 노동자의 이성적인 행동이 그들의 봉급을 최대화하고 그리고 미래의 수입증가라는 개념으로 투자 이윤이 자신에게 공평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인적자본에 합리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쿠바에서의 인적 자본 축적은 수입의 최대화라기보다는 평등하고 중앙 집중적인 계획의 일환으로서 정부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다. 노동을 자본과 결합시켜서 정부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또한 정부의 계획이었으며, 따라서 여기에는 경쟁에 바탕을 둔 이윤의 최대화와 같은 개념은 빠져있다. 그러므로 인적 자본의 축적은 기술 변화로 연계되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성장과 생산요소간의 상호보완 작용은 비효과적이었고, 시너지 효과도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쿠바 경제의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인적자본 이론에 바탕을 둔 신고전 경제성장이론은 국제무역이라는 요소와 함께 경제발전론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쿠바와 같이 작은 경제는 개방되고 자유화된 무역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인적자본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인적 자본은 고부가가치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유용하며, 쿠바와 같은 작은 국가에서는 국제 무역은 상품과 서비스의 마케팅에 주된 근원이 될 것이다.

둘째, 비록 거시경제적 운영 성과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인적 자본 축적은 쿠바에서처럼 아주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 투자부문 정책에 있어서 인적 자본의 축적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낮은 경제성장률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보건 그리고 영양적인 서비스로써 시민들에게 높은 투자 이윤을 보상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는 노동 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더 양질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적 자본의 축적은 높은 수준의 거시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속적인 거시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이 주가 되고 경쟁이 기반이 되는 경제 시스템과 제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 저자는 이 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번역에 수고해준 이영란, 정영립, 조윤영 조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참고문헌

Amsden, Alice H.(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Azariadis, Costas, and Allan Drazen(1990), Threshold Externalities i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5 (May).

Banco Nacional de Cuba(1996), Informe Economico 1995, La Haana.

Becker, Gary(1964), *Human Capital*,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Barro, Robert(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May).

Easterly, William(1993), Explaining Miracles: Growth Regressions Meet the Gang of Four, Paper presented at the East Asian Seminar on Economic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San Francisco, Calif. June.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1997), *La Economia Cubana: Reformas estructurales y desempeno en los noventa*, Fondo de Cultura Economica, Mexico City)}

Edwards, Sebastian(1995), *Crisis and Reform in Latin America: From Despair to Hop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Fukuda, Shinichi(1993), The Conditional Convergence in East Asian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East Asian Seminar on Economic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San Francisco, Calif., June.

Gaspirini, Lavina(2000), The Cuban Education System: Lessons and Dilemmas,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Harberger, Arnold(1972), Investment in Men and Machines: The Case of India. In Arnold Harberger (ed.) *Project Evaluation:*

Collected Paper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Harbison, Frederick and Charles A. Myers(1964),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 Strategie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cGrow-Hill Book Co., New York.

Japersen, Fredrick(1997), Growth of the Latin American and East Asian Economies. In Birdsall and Fredrick Jaspersen (eds.) Pathways to Growth: Comparing East Asia and Latin America,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Lee, Kye Woo(1983), *Human Resources Pla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mproving Technical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Lee, Kye Woo and Cho Kisuk(2000), Women in the Korean Labor Market dur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World Bank and the Korea Labor Institute, May, Seoul.

Lucas, Robert E. Jr.(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 (July)

Mesa-Lago, Carmelo(1998a), ECLAC's Report on the Cuban Economy in the 1990's, in *Cuba in Transition*: volume 8,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Cuban Economy(ASCE), Miami, Florida.

Mesa-Lago, Carmelo(1998b), Assessing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in the Cuban Transition of the 1990s, World Development, Vol. 26. No. 5.

Madrid-Arid, Manuel E.(1998), Investment, Human capital, and Technological Change: Evidence from Cuba and its Implication for Growth Models, in *Cuba in Transition*: volume 8,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Cuban Economy(ASCE), Miami, Florida.

Pan-American Health Organization(PAHO)(1998), Health in the

Americas, Vol.II. Washington DC.

PNUD(1997), *Investigacion sobre el Desarrollo Humano en Cuba 1996,* Caguayo S.A., LaHabana.

Psacharopoulos, George(1993), *Human Resourc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riorities and Action,* World Bank, Washington, DC.

Psacharopoulos, G. and Ariel Fiszbein(1991), A Cost-Benefit Analysis of Educational Investment in Venezuela, 1989, World Bank, Washington, DC.

Psacharopoulos, G.(1992),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orld Bank, Washington, DC.

Psacharopoulos, G. and Ying Ng(1992), *Earnings and Education in Latin America: Assessing Priorities for Schooling Investments,* Working Paper 1056, World Bank, Washington, DC.

Pyo, Hak(1993), Time-Series Test on the Endogenous Growth Model with Human Capital, Paper presented at the East Asian Seminar on Economic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San Francisco, Calif., June.

Romer, Paul(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October).

Schultz, T.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March).

Schultz, T.W.(1980), Nobel Peace Prize Addres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 (August).

Selowsky, Marcelo(1969), On the Measurement of Education's Contribution to Grwo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3 (August).

UNESCO/OREALC(1998), *Primer Estudio Internacional Comparativo sobre Leguaje, Matematica y Factores Asociados en*

Tercero y Cuatro grado, Laboratorio Latinamericano de evaluacion de la Calida de la Educacion,Unesco, Santiago.

World Bank(1987), *World Development Report 1987*.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World Bank(1996), *Pink Sheet*, Washington DC.

World Bank(200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0, Washington, DC.

[Resumen]

La acumulación del capital humano y su rendimiento macroeconómico en Cuba

Lee Kye Woo

Este informe analiza la relación entre la acumulación del capital humano en Cuba y su rendimiento macroeconómico en las últimas cuatro décadas y procura explicar la inconsistencia existente entre la teoría de desarrollo y la realidad cubana.

Por largo tiempo, los economistas han argumentado que la acumulación del capital humano constituye uno de los pilares fundamentales para las estrategias de desarrollo. En los últimos años, esta idea ha reanudado popularidad gracias al desarrollo del modelo de crecimiento endógeno el cual incorpora la posibilidad de altos retornos de escala y externalidades positivas. La teoría sostiene que una vez que la educación alcanza a un cierto punto, las externalidades a lo ancho de la economía incrementan el grado de crecimiento productivo y, por lo tanto, el rendimiento económico en su totalidad.

La nueva teoría de crecimiento y la teoría neo-clásica de capital humano, sin embargo, son desconcertantes cuando se observa dentro del rendimiento económico de Cuba en las cuatro últimas décadas. Desde la Revolución de 1959, la población de Cuba ha gozado de una calidad relativamente alta de servicios de salud y educación, las cuales no han sido disponibles en otros numerosos

paíse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a niveles similares o incluso a en los altos niveles de ingresos. Casi todas las personas, irrespectivamente de su raza, edad, sexo, y nivel salarial, ha tenido acceso a una básica educación pública y de servicios de salud, las cuales la calidad de dichos servicios eran lo mismo o más altos que aquellos disponibles en otros países industrializados de alto ingresos. La acumulación del capital humano en Cuba en las últimas cuatro décadas ha sido prominente entre los países en desarrollo, particularmente entre sus países vecinos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onsecuentemente, el rendimiento macroeconómico de Cuba tendría que haber sido espléndido también. No obstante, a pesar de la provisión universal e igualitario de servicios, el rendimiento macroeconómico de Cuba en las últimas tres décadas fue poco prometedor.